

# 젊음·활력 UP '광산뮤직ON페스티벌'

21~22일 황룡진수공원 일일 유명 뮤지션 참가 다채로운 공연 청소년 댄스·먹거리 존 등 '풍성'

광주 광산구가 광산의 젊고 생동감 있는 도시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대표 축제인 제1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황룡진수공원 일원에서 첫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 열린다.

광산구는 우리밀 축제 중단 이후 지역 대표 축제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음악 축제를 준비해 왔다.

특히 도·농·공 복합도시, 평균 연령 39.5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의 특성 등을 담아 내고, 미래 성장동력을 품은 광산의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역동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음악적 에너지'로 풀어내고자 '광산뮤직ON페스티벌'을 기획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축제 장소인 황룡강 물줄기를 따라 조성된 황룡진수공원도 드넓은 잔디밭과 가을이던 만개한 코스모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 피크닉형 야외 페스티벌을 개최하기에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1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Healing Hi, Feeling High!(힐링하이, 필링 하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21일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유명 가수과 밴드가 대거 출격하는 뮤직페스티벌이 준비돼 있다. 1, 2부로 나눠 이무진 밴드와 김기태, 편지, 전건호, 경서예지, 로맨틱펀치, 울랄라세션 등의 명품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앞서 지역예술인의 거리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22일에는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청소년 댄스대회가 예정돼 있다. 지난 9월 예선을 통과한 팀들이 21일 본선을 거쳐 이날 최종 우승을 놓고 결선을 벌인다. 청소년들이 직접 창작한 흥겹고 박진감 넘치는 댄스 공연의 향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리 춤 공연 프로그램과 같이 실제 댄스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SNS, 문자 투표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싸이이미테이션' 가수인 싸이 버거, 5인조 아이펠라 그룹 '두왓사운즈', 대한민국 '남버 1' 팝핑팀인 오리엔탈하이퍼로즈 등이 꾸미는 지역 뮤지션 공연도 열린다.

축제를 찾는 시민을 위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 볼거리도 풍성하게 마련한다.

행사장 곳곳에 나무 그늘, 잔디에서 소풍처럼

축제를 즐기는 피크닉존, 감성 조명이 가득한 '물명빛명존'과 더불어 가을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코스모스존, 사진 촬영 욕구를 부르는 야간 경관 포토존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플라마켓존, 특색있고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만날 수 있는 먹거리존도 운영한다.

특히 첫 축제를 기념해 제32회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 제32회 용아백일장 등도 21일 광산뮤직ON페스티벌과 함께 황룡진수공원에서 개최한다. 지역상생기업인 NH농협 광주본부도 첫 축제를 후원하기로 하는 등 더욱 풍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광산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에 두고, 종합운영대책도 추진한다. 부서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토대로 주차 및 행사장 안내, 의료 지원,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을 맡을 400~500명의 인력을 현장 배치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황룡진수공원에서 펼쳐지는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 새로운 지역의 대표 축제로, 또 광주시민의 가을 힐링 축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름다운 자연과 다채로운 즐거움이 있는 광산뮤직ON페스티벌에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최근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신설할 장애인 복지금의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내년 신설 장애인복지기금, 인권·자립 지원해야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열고 활용 방안 논의

광주 광산구는 "최근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신설할 장애인 복지금의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장애인복지기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광산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날 이면 조례 개정으로 내년 신설될 장애인복지기금 활용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학대나 범죄 피해를 당한 장애인 보호 지원,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자립 지원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 정책에 기금을 활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광산구는 논의 결과를 내년 기금 신설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분야별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25명으로 구성됐다. 광산구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7명에서 위원 숫자를 대폭 확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한울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함께 장애인의 자립, 상생을 위한 제주도 한 달 살기 프로젝트인 '우리 함께 산다' 발대식을 가졌다.

## '우리 함께 자립' 장애인 제주도 한 달 살기 도전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프로젝트

광주 광산구 장애인들이 제주도 한 달 살기도 도전하고, 주체적 자립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일 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한울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함께 장애인의 자립, 상생을 위한 제주도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우리 함께 산다' 발대식을 개최했다.

'우리 함께 산다'는 장애인이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는 자립의 장, 이웃과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상생의 장, 여행이라는 낯선 세계를 교류하며 알아가는 배움의 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로 총 16명의

장애인이 참여한다.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지난 7월부터 사전모임, 답사 등을 진행하며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준비했다. 4명이 1조를 이뤄 각 조의 이름을 정하고, 제주도에 서 생활하며 지켜야 할 생활 수칙, 여행 계획 등을 세웠다.

이날 발대식에서 '우리 함께 산다'의 취지와 진행 상황, 조별로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실현 계획을 공유했다. 자립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참여자 서약과 프로젝트 시작 의미를 담은 설정곡(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발대식을 마친 장애인들의 제주도 한 달 살기는 오는 2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조별로 일주일씩 순회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의회, '광일고 평준화 전환'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재봉)는 최근 '광일고등학교의 평준화고 전환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사진> 간담회에는 김성률 광일고교장과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비평준화 특수지교등학교인 '광일고의 평준화고 전환'에 대한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했다.

김성률 교장은 '광일고 평준화고 전환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이 학급 수 감축과 학생 모집의 어려움 등 광일고의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특히 현재 지역 문제로 떠오른 고등

학교 과밀학급 및 원거리 배정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평준화고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광산구 구도심과 신도시, 농촌 지역의 접근성을 확보해 교육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야동·신가동·신상동)은 "아이들이 균등한 기회와 가능성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육 환경과 여건 조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에 제시된 정책적 대안을 토대로 '광일고의 평준화고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 광주시,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광주시는 "내년 2월 29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 시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 증가와 야생멧돼지 교미에 수컷의 이동 증가로 인한 양돈 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실을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 농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과 병행·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위해 가금류 사육 농가(전업농가 8개소 약 20만수)에 대한 소독·예찰을 강화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소(51개소)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일제 휴업·소독의 날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10월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10~11월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실태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